

【서평】

방인 · 장정욱, 『역주 주역사전』

— 한국 역학사 연구에 초석을 세우다 —

황 병 기

I. 다산과 주역사전의 완성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¹⁾이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강진으로 이배된 것이 1801년 11월 겨울이었다. 강진읍성의 동문 밖에 있던 주막집 한켠에서 읍내 학동들을 교육하며 호구를 삼았는데 이 호구책으로서 만든 『아학편兒學編』이라는 2천 자로 된 아동교재 외에 처음으로 공을 들여 저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역사전』이었다. 1804년(갑자년) 초입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 그해 겨울에 완성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총 8권 분량의 책이었다. 이것을 갑자본이라 한다.

그리고 매년 개정본을 내었는데 4년 뒤 1808년(무진년)에는 총 24권 분량의 무진본으로 완결된다. 그의 맏아들 정학연丁學淵²⁾과 둘째 아들 정학유丁學游³⁾도 주석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없을 때 이청

1) 茶山 丁若鏞은 英祖 38년(1762) 6월 16일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현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현종 2년(1836) 2월 22일 그곳에서 서거하였다. 初名은 歸農, 冠名은 若鏞, 字는 美鏞, 頌甫, 號는 三眉, 茶山, 俟菴, 紫霞道人, 苔叟, 門巖逸人 등, 堂號는 與猶堂이다.

2) 丁學淵(1783~1859): 아명은 學稼와 武群, 자는 釋修, 호는 西山. 다산의 맏아들로 詩文에 능했으며 의술에도 밝았고 監役 벼슬을 지냈다. 저서로 『種畜會通』 8권 3책이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

李疇⁴⁾이 참여하여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모두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 있을 때의 일이다. 그리고 다산은 스스로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 통하거나 지식이 나 사려로 도달한 것이 아니다. …천 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것이니 아끼고 소중히 하라.”⁵⁾ 하고 두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다산의 역학 방면 저술은 두 종이 있다. 『역학서언易學緒言』은 개설 역학철학사라고 할 수 있으며 『주역사전周易四箋』은 역학이론서이다. 다산은 이 두 작품을 통해 『역』의 기원에서부터 당시까지의 성과를 분석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자신 나름의 정설을 수립하였다. 다산에 따르면 『역』은 고대의 전설적 성인이 천지天地를 관찰하고 천명天命을 알아 교화教化하고자 한 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성인의 의지는 천지변화天地變化의 양상을 기호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성격을 지닌 사물에 빗대어 길흉을 판단하고 윤리적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데로 이어졌다. 그후 주문왕周文王과 주공周公이 그 기호인 괘卦의 의미를 표현하는 역사易詞를 지어 상징의 언어화를 성취하였다.

예술작품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그림 자체로 제시되므로 여러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호 메시지는 예술작품과는 달리 기호에 대한 지식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문자에 대한 해독과 마찬가지로 기호읽기인 것이다. 기호읽기는 그것이 기호인 한에 있어서 기호를 어떻게 조합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8괘 또는 64괘는 복잡기호로서 더 많은 해석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기호의 근본적인 기능은 상관관계가 없는 관계에 상관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기호는 관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

3) 丁學游(1786~1855): 아명은 學圃와 文旌, 자는 釋求, 호는 耘逋. 다산의 둘째아들로 『農家月令歌』의 저자이다. 편서로 『詩名多識』 4권 2책이 있다.

4) 李疇(1792~?): 자는 鶴來, 호는 琴初. 강진 유배기의 제자로 1806년부터 한때 다산은 이청의 집에 기거하였다. 『大東水經』 등을 정리했다.

5) 『진서』 1/18, 『家誠·示二子家誠』, 5b.

『周易四箋』, 是吾得天助之文字, 萬萬非人力可通智慮所到. 有能潛心此書, 悉通奧妙者, 卽子孫朋友. 千載一遇, 愛之重之, 當倍常情.

다 이루어지도록 보편적인 규칙과 습관을 구축한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사고는 기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호란 한쪽에는 대상이, 다른 한쪽에는 해석내용이 존재하는 것이며, 해석내용과 대상 사이에는 고유한 상응관계가 유지된다.”⁶⁾ 즉, 대상과 그 의미 사이에 기호라는 매개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둘의 상관성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의 전제조건인 하나로서 기호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고 실제로 의식된 기호이든, 아니면 무의식의 기호이든 간에 인간은 기호를 통해 사유하고 있다. 따라서 롤랑 바르트(1985)의 “세상은 기호로 가득 차 있다.”⁷⁾는 언명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다산은 이미 기호가 인위적 조작에 의해 임의적으로 부여된 명칭임을 알고 있었다. 8괘의 명칭이나 물상들은 사람이 정한 이름(人立之名)이지 자연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역론2』에서 밝힌 바 있다.⁸⁾ 『역』에 대한 모든 신비화적 작업을 에포케(epoche)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립지명人立之名’이라는 전제이다. 패명과 물상은 최초 약속에 의해 정해진 명칭이기 때문에 그 약속만 독자가 지킬 수 있으면 언제든 『역』은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치 교통신호가 파란 불일 때 언제든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과 같다.

언言, 象象, 意意 가운데 象象이 『역』의 제1의적 요소임을 인정한다면 다산의 역상易象 이론은 독자에게 파노라마와 같은 구체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고도의 추상적인 형이상학 체계로는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이며 실존적인 사유를 하도록 이끈다.

다산은 이러한 『역』 해석방법론을 근거로 經經과 傳傳의 전반적 개편을 단행하였다. 『대상전大象傳』을 별도 표장하고, 『계사전繫辭傳』에서 괘효사를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간주되는 구절들은 해당 괘효사 아래에 편입시키고, 서법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시괘전蓍卦傳』에 편

6) J. R. 퍼스, 『기호론』(1974). Georges Jean의 『기호의 언어』(서울: 시공사, 김형진 옮김, 1997), 135쪽에서 재인용.

7) 롤랑 바르트, 『기호학의 모험』(1985). 위의 책, 139쪽에서 재인용.

8) 『전서』 1/11, 『論·易論二』, 2b.

著之爲法式, 冀天之因其名而用之, 雖人立之名, 非天之所以爲實然.

입시켜 별도의 전傳을 구성하였다. 『시괘전』은 다산이 재구성한 하나의 시괘법蓍卦法 안내서이다. 물상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하고 나머지 3법法을 적용방법으로 삼아 점술적 신비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과감한 갈대기를 시도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다산으로 하여금 이처럼 과감한 발상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 세계관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통역학에서는 우주와 인간이 도道나 리理라는 거대하고 원만한 통일성 안에서 융해되어 논의될 수 있었다. 왕필역학에서 무無라는 통일적 실체로 우주와 인간이 회귀할 수 있었다면, 주지역학에서는 리理라는 보편적 원리로 포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산역학에서는 원시유학의 상제上帝가 복권되면서 그 최고존재 아래 우주와 인간이 구분되는 천인분리天人分離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자연학과 인문학의 총체적 진리가 담겨있다고 여겨졌던 『역』의 면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산의 구도 속에서 인문학의 모든 기호와 상징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다. 신 아래 자연과 인간이 대적하듯이, 자연은 자연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인간은 인간의 윤리에 따라 살 뿐이다. 인간의 발명품은 인간의 소유물이듯이 『주역』도 인류가 발견한 인간만의 기호와 상징의 체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주역』은 다분히 불완전하며 한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산이 『주역』을 은말주초殷末周初의 한정적 시공간 속 문화 텍스트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역』의 폼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례周禮가 다산의 이상이었던 것과 같이 『주역』의 상징세계는 그가 이상시했던 성스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주역사전의 탈고에 비견되는 역주본

이을호 선생이 「정다산의 역리에 대하여」(1958)를 발표한 이래 20여 년이 넘게 이렇다 할 논문이 제출되지 않다가, 방인 교수가 1982년 석사논문을 제출하고 그 뒤를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학위논문과 소논문들이 연이어 제출되었다. 역학 관련 논문중 상당량은 다산의 『주역』 해석방법론을 연구한 논문들이며, 내용 또한 많은 부분 중복된다.

역주자 방인 교수는 다산역을 기호론 관점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주역』 해석에 있어서 기호는 제일의적第一義的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 텍스트를 기호론(semiotics)의 기반 위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주역』의 기호체계가 모의실험적(simulation)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⁹⁾ 그의 기호론적 탐구는 그가 제출한 논문들 전반에 걸쳐 주 관심사의 하나였다. 그는 『주역』을 인공기호를 사용하는 이론체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인공기호는 보편적 기호라고 규정한다.¹⁰⁾ 특히 다산의 역리사법을, 『주역』을 철저히 기호의 체계로 보는 방법론이라 정의하였다.¹¹⁾ 그에 따르면, 『주역』에서 문자기호보다 더 관심을 끄는 요소는 괘의 기호이며, 괘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호로써, 『주역』은 모두 64괘의 기호로 구성된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텍스트 읽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읽는다면 『주역』 텍스트의 고유성을 살릴 수 없다고 한다.¹²⁾

또 다른 역주자 장정욱張正郁은 방인 교수의 제자로, 현재 도가 연구 모임인 삼현관三玄觀을 이끌고 있다 하며, 다산의 『역학서언易學緒言』 중에서 「현산역간茲山易柬」(『다산학』 4호, 2003)과, 「사수고점

9) 방인, 「茶山의 『易論』을 통해 본 卜筮의 模擬實驗의 기능」(『주역연구』 4, 한국주역학회, 1999), 155-6쪽 참조.

10) 방인, 「茶山 易學思想에 대한 研究」(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 113쪽 참조.

11) 방인, 「茶山易의 기호론적 세계관」(『대동철학』 20, 대동철학회, 2003), 2쪽.

12) 방인, 위 논문, 12쪽 참조.

박沙隨古占駁』(『다산학』 6호, 2005)을 번역하였고, 「역상易象의 적용 방식과 설정원리에 대한 분석: 다산의 『주역사전』을 중심으로」(대한철학회, 『철학연구』 75집, 2000)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장정욱 선생도 지난 10여 년간 다산역학에 대한 소논문과 원전번역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니 그의 공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인 교수는 198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다산역학사상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논문을 쓰게 되면서 다산의 역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불교에 심취하였다가 불교의 유심론적 세계관에서 빠져 나와 현실의 세계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유학儒學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학부시절에 서울대로 출강하여 맹자를 가르치던 함재涵齋 김재홍金在泓(1916~2006) 선생이 평소 다산 정약용의 역경주석이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던 생각이 나서, 『여유당전서』를 뒤적이게 되었고, 거기에 주역에 대한 완전한 주석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뭇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학 열댓 명을 모아 함재 선생에게서 일주일에 두 번씩 『주역사전』을 사사했다고 한다.¹³⁾

서평자 또한 1995년부터 약 2년간 함재선생으로부터 『주역사전』을 학습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다산역학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함재선생 사후 2007년도에 제자들이 힘을 모아 『함재선생 주역사전 구결』을 출간하였다. 이 구결본은 원문에 현토를 달아 놓은 것으로 『주석사전』의 문리文理를 트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재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시대에 누구도 해내지 못할 대단한 작품이다. 같은 스승을 두고 방인 교수와 공부를 했다는 것이 서평자에게도 커다란 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튼 방인 교수의 『주역사전』 주석작업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연마하고 수정작업을 지속해 온 역작이다. 물론 그것이 다산선생의 5년간의 창작작업과 비견될 수 있

13) 『오늘의 동양사상』 17호(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7), 218-31쪽에 실린 「저자와의 대화, 방인·장정욱 역주, 『역주 주역사전』(정약용)」편을 참조.

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작품의 완성을 위해 고심했다는 것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심이 저절로 우리나라에게 하는 일이다.

현재 방인 교수는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여유당전서』 정보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정보定本 사업이란 신조선사에서 1936~37년 출간한 『여유당전서』의 오탈자를 교정하고 체제 문제와 미수록 자료 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할 만한 확정본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정보는 표점標點을 달아 제작되는데 표점작업 또한 만만한 작업이 아닐 것이지만 이 또한 방인 교수에 의해 완료되었다. 번역과 함께 표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표점본보다 오류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인 교수의 노고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Ⅲ. 역주본의 의의와 개선 사항

『주역사전』은 분량이 많은데다가 역학에 조예가 깊으면서도 다산학을 겸비한 연구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책의 중요성에 비해 완역이 늦어졌다.

이전에 『주역사전』의 일부 또는 전체가 번역된 것은 불과 2편에 지나지 않았다. 『주역사전』의 서두에 해당하는 「괄례표括例表」를 함재涵齋 김재홍金在泓 선생이 번역하여 『다산학보』 제3집(1980)에 게재한 바 있고, 2004년에 이영희 선생이 『자세히 풀어 쓴 주역사전』(민창사)을 출간한 바 있다. 이영희 선생의 책이 완역본인 셈인데, 최초의 번역본이면서도 비교적 대과없이 번역되어 있다. 다만 이 책은 원문이 실려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었고, 여러 필사본과 대조 교감이 되어 있지 않아 한두 곳 오류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방인 교수의 역주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원문과 역문을 나란히 실어서 보기 쉽게 하였고, 교열한 곳이나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각주를 달아 의혹을 풀어주고 있어 연구 번역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8괘나 64괘의 괘상을 모두 병기해 주었으며, 경문 해석에 있어 추이推移나 효변爻變의 양상을 한눈에 알기 쉽게 본괘本卦와 지괘之卦 등의 괘상卦象을 삽입하고 또 화살표 등을 이용해 친절하게 그 변화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다. 번역도 번역이러니와 이것을 일일이 다 역자들이 입력해 넣은 그 공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책의 부피도 총8권에 전체 면수는 3,037쪽, 주석의 전체 개수는 7,120개에 달하고, 또 각 권의 전면지와 후면지에 괘효사색인과 효변표를 배치하여 검색의 편리를 추구했다.

그러나 서평자의 관점에서 불만스러운 점과 미진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열의 미진함이다. 역주자들은 ‘일러두기’에서도 “신조본, 규장본, 국중본을 대교하여 오자를 바로잡고 이를 [교열]로 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교열]을 달아놓았지만 여전히 교열 안 된 것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1책 43쪽의 ‘이음표二陰表 下’에 “大壯 上之四 中孚 三之五 爲大畜”이 있는데 여기에서 ‘大畜’은 신조선사본에 ‘大留’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이를 바로잡는 교열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권1의 『팔괘표』에서만도 여러 곳 발견된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다행히 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신조선사본에 오탈자가 많았던 것일 뿐이 역주본의 문자에는 오탈자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권1의 『팔괘표』에 한정된 문제로, 다산의 원문을 역주본에서 편의상 약간의 재배치를 해 놓은 것이 오히려 번거로운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위의 예문을 가져다 써보자. “大壯 上之四 中孚 三之五 爲大畜”이라는 문장에서, 원래 다산의 원문에는 ‘大壯 ䷗’과 ‘中孚 ䷛’가 모형母型으로 한 줄 위로 빠지고 그 아래로 “上之四 ䷗ 三之五 爲大畜”이라는 문장이 이어진다. 즉 모형으로서의 대장괘에서

상호가 제4위로 옮겨가거나 중부괘에서 제3호가 제5위로 옮겨가면 대축괘가 된다는 문장이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두고 도표로 만들면 원문의 맛을 살리면서 좀 더 보기 쉽게 되었을 것 같다. 다산이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풀어서 기술하려다 이런 모양이 된 듯한데, 다산의 기호론적 역학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기호가 주는 압축성을 살려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셋째, 편집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제1책부터 제8책까지 차례 및 오른쪽 꼬리말에 ‘周易四箋 戊辰本 卷之一’, ‘周易四箋 戊辰本 卷之二十四’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역자들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신조선사본의 표기방식이 아니다. 1808년의 무진본戊辰本이 완결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듯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본은 갑자본도 아니고 병인본, 정묘본도 아니다. 현재 규장각 소장 필사본과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그리고 신조선사본 외에 다른 활자본이나 필사본이 있다는 정보가 아직 없고, 이 모두가 무진본이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도 없는 ‘무진본’이라는 표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차례 및 꼬리말에는 ‘(經集) 周易四箋 卷一 括例表 上’ 정도면 족할 것이다. 차례 및 꼬리말이 색인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 권의 편명을 달아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다산의 『주역사전』에 대해 한국 역학사 내에서 완결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다. 우선 한국의 역학연구사 전체에 대한 조망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역학자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은 실정이므로 『역주 주역사전』의 가치는 더 더욱 빛이 난다. 한국 역학사를 정리하는 데 초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주역』에 대한 완주完註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박창우朴昌宇(1636~1702)의 『주역전의집해周易傳義集解』와 유정원柳正源(1702~1761)의 『역해참고易解參攷』도 완주본이다. 그러나 『주역전의집해』는 리리를 논한 정자程子の 『역전易傳』과 상象을 논한 주희朱熹의 『본의本義』 가운데 서로 보완되는 부분과 소략한 부분을 한데 모아 집해集解한

저술로서, 경연 강의를 위해 편집한 것이며 저자 자신의 사상체계를 드러낸 책이 아니다. 또 『역해참고』는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의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주석작업을 한 것이지만 저자 자신의 견해는 역대 역학자들의 문장을 배열하는 순서나 관점에서만 드러나는 정도이다. 저서가 아니라 편서編書인 것이다. 서평자의 소견으로는 『주역』을 완주한 사람은 다산이 유일하다. 완주했다는 것도 역학사의 의의가 있지만 완전하게 자신의 문장으로 자신의 이론으로 주석했다는 데 그 위대성이 있다.

『역주 주역사전』은 그것을 오늘의 우리 언어로 옮겨놓은 것이다. 번역문에 대한 책임은 역자 자신들에게 있다. 애초에 번역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번역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번역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서평자는 번역문의 작은 흠을 잡아 꼬투리 잡는 비평을 지양한다. 번역자마다 약간의 문체가 다르고 문투가 다르므로 번역의 치명적 오류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역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주본은 우리가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